

전남 천봉산과 인접지역의 관속식물상 및 보전전략

The Flora of Vascular Plants in Mt. Cheonbong and Nearby Area and Its Conservation Strategy

이유미*, 최혁재, 박수현, 최형선, 남기홍
국립수목원 생물물표본과

I. 목적

천봉산(608.8m)으로 대표되며 인근의 말봉산(584m)과 까치봉(578m)을 포함하는 본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과 복내면 및 화순군 남면을 포함하고 있다. 본 조사지역은 식물구계지리학상으로 볼 때 한반도 남부아구에 속하며, 식물군계수준에서는 냉온대 남부인 난온대 낙엽수림대에 해당되고 식생지리학적으로는 대륙형으로 한반도아형의 중부산지형이다.

현재 이지역에서는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에 대한 보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 조사는 물론 천봉산일대의 관속식물상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본 조사의 목적은 천봉산 및 인근지역의 관속식물상을 파악하고 이중에서 한반도특산식물, 희귀식물, 환경부 지정 특정식물종, 귀화식물 등의 분포를 밝는데 있으며, 이율리 주요지역의 식생을 파악하고 식물상 자료와 함께 타당한 보전전략을 수립하므로써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식물종 보전이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II. 조사방법

조사지역의 관속식물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3월부터 동년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꽃, 열매, 포자 등 생식기관이 있는 개체만을 수집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식물들은 석엽 또는 액침표본으로 제작하였으며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식물표본실(KH)에 보관하였다. 분류군의 동정은 정(1957), 이(1980, 2003), 이(1996), 이(1996) 박(1995, 2001) 등의 도감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일부 양치류의 동정에 있어서는 한국양

치식물연구회(2005)의 도감을 이용하였다.

증거표본에 의한 소산식물목록의 작성은 Engler의 분류체계(Melchior, 1964)를 따랐고, 양치식물은 Tagawa & Iwasaki(1972)의 분류체계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학명 및 국명은 국립수목원(2003)에서 제시한 국가표준식물목록에 준하였다. 주요 자원식물인 한반도특산식물, 희귀식물, 환경부지정 특정식물은 오 등(2005)과 이 등(1997)의 목록과 환경부에서 제시한 제 2차 전국자연환경조사지침(환경부, 2001)에 의해 분류하였으며, 박(1995, 2001)에 따라 분류한 귀화식물과 함께 목록의 국명 뒤에 별도로 표기하였다..

III. 주요결과 및 고찰

1. 식물상

본 연구에서 밝혀진 소산 관속식물은 105과 303속 448종 3아종 56변종 6품종의 총 513분류군으로, 양치식물 10과 17속 30종 1변종(6.04%), 나자식물 1과 1속 3종(0.58%), 피자식물의 쌍자엽식물 81과 225속 323종 2아종 39변종 3품종(70.37%), 단자엽식물 14과 64속 94종 1아종 17변종 3품종(23%)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과별로 구분하면 벼과가 49종류로 가장 많았고, 국화과 47종류, 콩과 29종류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주요 식물의 분포특성

본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우리나라 특산식물은 비교적 삼도하수오를 비롯하여 흰괭이눈, 나래완두, 정영엉겅퀴, 분취 등 12분류군이며, 법적보호종 3종과 희귀식물은 매미꽃, 빼꾹나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매우 희소성이 높은 으름난초 등 모두 6분류군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환경부 지정 특정식물종은 I등급종은 꿩의바람꽃, 대극, 노랑어리연 등 28분류군이 분류되었으며, II에 속한 식물은 각시고사리, 두메충충이 등 7분류군, III등급에 속한 식물로는 노각나무, 당개지치, 육절보리풀 등 9분류군, IV등급 식물에는 매미꽃이 V등급 식물로는 으름난초 등 3종류가 분류되었다.

조사구역 내 귀화식물은 모두 33종이 분류되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분류군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기간의 초기에는 볼 수 없었던 귀화식물이 조사기간의 후기에는 넓은 지역에 생육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본 지역의 개발과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개발이 지속적 이루어질 경우 귀화식물들의 이입현상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3. 보전 전략

조사대상지에는 특기할만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이 집중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지역에 집약적인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요 종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할 때, 보전지역으로의 지정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지역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찰림에 소유되어 있어 적절한 보전관리가 가능한 천연유전자보호림으로의 지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히어리나 백양꽃과 같은 특산식물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규모 분포 특성을 고려할 때 천연기념물로의 지정 또한 고려가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보전지역의 설정이외에 국내최대의 군락지인 히어리 및 텔조장나무 집단의 경우, 이대로 방치될 경우 수관의 윤폐에 따라 점차 도태되어 가는 가능성이 나타나므로 정말 개체군 조사를 통한 결과를 근거로 임분관리를 통한 보전작업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급속히 점유율이 높은 귀화식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